장기미제사건 수사 감추기 급급한 경찰

경찰청 "건수 외엔 일체 알려주지 말라"며 이상한 지침 내려
화성사건 계기 수사 속도 필요…전문가들 "적극 알려 제보받아야"
광주·전남청 전담인력 각각 3명 뿐…자료 검토하다 허송세월

"장기 미해결 강력사건을 단 한 건이라도 해결하겠다." 경찰청의 결의에 찬 목소리다. 하지만 경찰청이 전국 지방경찰청에 '언론에 장기 미제사건은 건수 외엔 일체 알려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미제사건 해결률을 높이겠다는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화성 연쇄 살인사건'처럼 미제사건 해결에는 제보 한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경찰청이 직접 나서 미제사건을 숨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선 경찰에선 모처럼 찾아온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받아도 부족할 판에 "이미 알려진 미제사건에 대한 공개를 지침까지 내려 금지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19일 경찰청과 광주·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전국 지방청에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언론에 장기 미제사건과 관련해 건수 외엔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은 핵심 제보자의 신고로 DNA 분석을 통해 '화성연쇄 살인범'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지만, 경찰청은 나머지 미제사건에 대해선 침묵했다.

경찰청 미제사건 담당자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강력 미제사건의 경우 언론보도가 나오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미제사건 공개거부 이유를 밝혔다.

'수십 년간 피의자를 밝혀내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에 무슨 피의자 도주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수사사항에 관한 부분이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청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미제사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부로 알려 제보를 받고, DNA 검사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다 알려진 미제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갑자기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물론 이날 결정적 국민제보와 DNA검사를 통해 33년만에 '화성 연쇄 살인범'을 찾아내긴 했지만, 수사인력배치 등을 보면 나머지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전남청의 미제사건 전담 인력은 각각 3명에 불과하다.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수많은 수사인력에 수사본부까지 차리고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극소수의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사건은 발생 15일이 지나면 해결이 어려운데다,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엔 1건당 3명의 수사인력이 하루 12시간씩 매달려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껏 사건분석을 했더라도, 짧게는 1년만에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 경찰이 바뀌는 사례도 있어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미제사건이 지방청의 전담팀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5년이나 걸리는 것도 문제다. 사건이 발생 후 5년이 경과해야만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전담팀으로 넘어가는 탓에 증거 훼손 등으로 사건해결이 쉽지 않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설명이다.

경찰의 더딘 수사방식을 바라만 봐야 하는 범죄 피해 가족들은 "전형적인 '수사편의주의' 방식"이라며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강력 미제사건은 총 18건(광주 11건, 전남 7건)이다.

광주일보가 5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강력 미제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주요 미제사건 중 하나는 김모(49)씨가 지난 2009년 3월 9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둔기에 맞고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면식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또 다른 사건은 2001년 9월 4일 서구 내방동의 한 가정집에서 임신부(35)가 10군데가 넘게 흉기에 찔린 채 태아와 함께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도 십 수년이 흘렀지만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이 외에도 동구 60대 노인 둔기 피살 사건(2008년 10월 19일), 광산구 40대 남성 둔기 피살 사건(2005년 5월 16일),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피살 사건(2004년 9월 14일) 등이 있다.

전남의 주요 미제 사건은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사건(2010년 10월 15일), 나주 지석강 40대 여성 속옷 변사체 사건(2008년 9월), 화순 80대 독거노인 살해사건(2007년 1월), 순천 농수로 60대 둔기 피살 사건(2005년 5월), 영암 부인 흉기 살해사건(2004년 8월), 나주간호사 알몸 살해사건(2000년 8월) 등 7건에 이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월 조합장 선거 금품·흑색선전 얼룩
광주·전남 입후보자 무려 238명 입건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200명이 넘는 입후보자가 검찰에 입건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와 관내 지청(목포·장흥·순천·해남)은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48명을 기소(구속 8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된 인원 중 당선자는 21명(구속 2명)이다. 이는 2015년 1회 조합장 선거(입건 210명)에 비해 13.3%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63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40명(16.8%), 사전 선거운동 등 기타 불법 선거운동 33명(13.9%) 순이었다.

1회 선거보다 금품 선거사범 비율(54.2%→68.5%)은 증가했고, 흑색선전 사범은 (16.2%→16.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에 구속된 8명은 모두 금품 선거사범으로 확인됐다.

광주 모 축협 조합장 후보였던 A(62)씨는 조합원 등 12명에게 65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50만원을 건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5만원권 지폐를 10장씩 고무줄로 말아 악수하는 척하며 상대에게 건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인 B(63)씨 부부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조합장은 지지 호소와 함께 25만원과 음식 제공 등을, 전남 모 축산조합장은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뿌린 혐의로 임원 3명과 함께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서민 괴롭히는 악성사기범 11월까지 집중 검거

경찰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범에 대해 집중 검거에 나선다.

경찰청은 "'서민 3불(不)' 사기 범죄 근절 대책의 하나로 오는 11월까지 악성 사기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3불(不)'이란 불안·불신·불행을 뜻하는 말로,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검거 전담팀을 꾸릴 방침이다.

3건 이상 다수 사건 수배자, 피해 금액 1억 원 이상 사건 수배자, 3년 이상 장기간 미검거 수배자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동부경찰은 이날 '서민 3不 사기 범죄 예방·근절을 위한 범수사부서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 경찰들도 본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과를 비롯한 형사과·정보과·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과 등 범수사부서가 참여해 보이스피싱·생활사기·금융사기 등의 근절을 위한 세부 추진사항을 세우고 집중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7만29건으로, 전년에 비해 16.6% 증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한 노조원이 19일 새벽 5시30분께부터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1대를 점거,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트럭 충돌 활어차 추락…추돌사고 차량 풀 베던 근로자 덮쳐
전남 잇단 교통사고 3명 사망·2명 부상

전남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9일 오후 3시께 해남군 북일면 왕복 2차선 다리에서 1t 트럭과 2.5t 활어 운반 차량이 정면으로 부딪혀 활어차가 난간을 뚫고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활어차 동승자 A(32)씨와 1t 트럭 운전자 B(25)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활어차 운전자 C(37)씨도 부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오후 3시께에는 나주시 왕곡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5t 트럭 운전자 D(52)씨가 가로수 조경 작업을 위해 갓길에 주차돼 있던 2.5t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2.5t 트럭이 인근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던 나주시 산림공원 근로자 3명을 덮쳐 1명이 숨졌으며, 나머지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성강수력발전소 새벽 화재…10여분만에 진화

인명피해는 없어

19일 새벽 5시 30분께 보성군 득량면 보성강수력발전소 내 발전기에서 불이 나 근무중인 직원들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발전기 2대 중 1대의 모터 일부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지그재그 선박 운항 선장, 레이더에 걸려 음주 적발

술에 취해 배를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좌초할 뻔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19일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25분께 광양시 금호동 슬래그 매립장 앞 해상에서 예인선 J호(134 t ·부산선적)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8.3㎞ 가량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J 호가 출항 직후 급격한 지그재그 운항과 항로 밖을 이탈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현장으로 출동해 J호를 멈추게 한 뒤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선장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조사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남의 신발 신고 화장실 갔다가…시비 끝 폭행으로 번져

쌍나팔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다녀온 40대와 신발 주인인 20대가 시비 끝에 싸운데다 이를 말리던 50대 식당 주인까지 싸움에 휘말려 나란히 경찰서행.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식당에서 A(49)씨는 '왜 내 신발을 허락없이 신었냐'고 따지는 B(27)씨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B씨도 A씨에 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

○…이를 말리던 식당 주인 C(50)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는데, C씨는 경찰에서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설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1037	1	남구 봉선동 21 무등파크맨션 301동 5층 502호 142.10㎡	아파트	402,000,000 402,000,000	2019타경7677,2019타경66560[중복]
2019타경4463	1	북구 임방울대로1041번길15, 108동 18층 1801호 [신용동,용두주공아파트] 59.99㎡[토지별도등기있음.관리비347,270원미납[2019.4.27.기준]	아파트	133,000,000 133,000,000	2019타경5909[중복]
2019타경5626	1	남구 독립로10번길14, 101동 12층 1202호 84.97㎡	아파트	168,000,000 168,000,000	
2019타경5787	1	서구 염화로31번길23, 101동 14층 1403호 [화정동,우미아파트] 59.83㎡	아파트	155,000,000 155,000,000	
2019타경7301	1	나주시 예향로3793, 12층 1216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120,000,000 120,000,000	
2019타경61046	1	서구 금화로59번길12, 204동 1층 102호 [금호동,금호동진흥더루벤스] 136.235㎡	아파트	638,000,000 638,000,000	
2019타경64595	1	남구 대남대로85번길3, 101동 11층 1102호 [방림동,방림명지로드힐] 84.882㎡	아파트	320,000,000 320,000,000	
2019타경64809	1	북구 유림로175, 109동 1층 103호 [동림동,삼익] 84.87㎡	아파트	155,000,000 155,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8타경18151	5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521 486㎡	대	84,733,050 84,733,050	일괄매각
		동소 523 714㎡	대		
		나주시 금천면 상촌길 9-4 1호 52.9㎡ 부속건물 광24.4㎡ 창고82.6㎡ 광33.1㎡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18151	1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712-2 194㎡[이영순지분7분의3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를1회로제한]	전	3,143,500 3,143,500	수목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18151	2	동소 산67-7 121㎡[이영순지분7분의3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를1회로제한]	임야	1,566,200 1,566,200	수목포함.지분매각
	3	동소 716-7 421㎡[이영순지분28분의3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를1회로제한]	답	2,374,700 2,374,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
	4	동소 716-8 981㎡[이영순지분28분의3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를1회로제한]	답	5,297,700 5,297,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
2019타경3354	1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4-6 593.1㎡[현황묵전및답]	전	55,160,600 55,160,6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5현황묘지및답,분묘소재로향후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2019.6.11.자반남면장사실조회서참조]
		동소 4-8 496.5㎡[현황묵전및답]	전		
		동소 4-9 1492.6㎡[현황묵전]	전		
		동소 4-11 596.0㎡[현황묵전및답]	전		
		동소 4-13 1075.7㎡	전		
		동소 4-14 333.1㎡[분묘소재]	전		
2019타경6599	1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216-1 204㎡	답	17,640,000 17,64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과수목매각포함
		동소216-2 237㎡[물건번호1:제시외소재비닐하우스매각제외.경계불명[지적측량요]]	답		
2019타경6926	1	화순군 동면 언도리 428 1276㎡ 제시외 매실나무 등 22주[제시외수목매각포함]	전	47,660,000 47,6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65642	1	곡성군 옥과면 황산리 237-2 950㎡[제시외비닐하우스매각제외]	답	22,800,000 22,8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9타경64199	1	남구 효덕로291, 상가1동 지하층 6호 [송하동,금호타운] 26.520㎡	근린시설	16,000,000 16,000,000	
[자동차,중기]					
2019타경67495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무등로15번길 11 [운암동] 등록번호:16노4944 차명:MINI Cooper D 연식:2012	자동차	11,000,000 11,0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10. 4.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10. 11. [금]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9. 2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성관